



[지속가능] 폰테라, 뉴질랜드 첫 전기 집유차량 도입

- 운송 및 유통까지 전체 공급망의 탄소배출량 저감 목표



뉴질랜드 최대 유가공 협동조합인 폰테라가 첫 전기 집유차량을 도입했다.

최근 해당 조합은 에너지보존국(EECA)이 관리하는 저탄소 배출 운송 기금(LEFT)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뉴질랜드에서 첫 전기 집유차량을 도입해 운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은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목장에서부터 운송 및 유통까지 전체 공급망에 걸쳐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 하에 착수되었다. 이에, 전기차의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경우 재충전 대신 배터리 교환소에서 충전된 배터리로 교체하는 배터리 스왑 시스템을 설치해 유통 과정에서 배터리 충전으로 소모되는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폰테라의 전기 집유차량 도입을 시작으로 다른 기업에도 확산될 경우 뉴질랜드의 탄소 배출량 저감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 scoop.co.nz, 7월 18일 >

[낙농경영]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유럽 낙농업계도 긴장

- 원유의 저온 살균 보관을 위한 전력 및 포장재 등 확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유럽 전역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는 가운데, 낙농업계도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푸드뱅크의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독일은 천연가스 배급제와 석탄발전소 재가동을 준비하는 한편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에어컨을 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철강은 물론 낙농업을 비롯한 에너지 집약 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원유를 저온 살균 보관하기 위해 전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될 경우 우유를 버려야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독일의 한 낙농협동조합은 연료유 20만 리터를 비축해 우유를 저온살균하기 위한 전력을 확보해 증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전기나 천연가스가 차단될 경우를 대비해 원유를 계속 차갑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포장재 및 기타 용품을 비축해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business-standard.com, 7월 18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